

일본 건설업 단체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지방화, 개방화를 중심으로 한 내외적 변화에 자극되어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돌입과 함께 시장 개방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각종 제도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고, 개별 기업들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 건설산업이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회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변혁의 주체는 말할 필요도 없이 건설업계이며, 이러한 업계를 선도하고 업계의 의견과 관심 사항을 조정하는 건설업 단체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환경 변화는 건설업자 단체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체 가입의 임의화와 계층별·지역별 단체의 설립 욕구 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계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건설 관련 단체의 구조적 특성과 운영 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전개될 국내 건설업 단체의 재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일본의 건설 관련 단체는 100여 개 이상의 전국적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전국건설업 협회와 일본건설업단체연합회가 업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상의 특성을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물론 상이한 정치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단체간의 협조 관계나 역할, 운영 실태 등에 있어 우리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돌입과 단체 가입의 임의화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국내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는 건설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여러 시사점을 주리라 믿는다.